사 내 한
CN 09-28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7.17 (통권257호)

경제 이슈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미
- 국내 고용시장 회복 조짐

경영 노트
- '신출내기' CEO가 해야 할 일

사회 트렌드
- 새로운 잃어버린 세대(New Lost Generation)

차이나 리포트
- 2009년 상반기 중국경제 지표와 전망

저널 브리프
- MICE시장 선점 경쟁

洗心錄
-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미

■ **한국과 유럽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거래 증대로 국내 경제 성장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추진중인 FTA의 체결 및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

- **한·EU FTA** : 2007년 5월 시작된 협상이 2009년 7월 13일에 사실상 타결. 관세 환급, 상품 양허, 서비스,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해 합의
- **경제 규모** : 한국과 EU를 합한 경제 규모는 2008년 GDP 기준으로 19조 3,411만 달러에 달해 북미자유무역 지역의 16조 8,637만 달러를 능가
- **교역 규모** : 대EU 교역은 200년 393억 1,200만 달러에서 2008년 983억 2,900만 달러로 150.8% 증가

■ **또한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되어 미국, 캐니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과의 FTA의 비준 및 체결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 국내 고용시장 회복 조짐

■ **통계청(2일)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되어 고용시장이 회복의 조짐을 보임**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증가(42만 명) 등으로 2008년 12월 이후 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감소에서 2009년 6월에 2,397만 6,000만 명으로 4,000명(0.8%) 증가로 전환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는 2009년 6월에 9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6,000명(20.4%) 증가하여 100만 실업자 수준에 근접. 실업률은 6월에 3.9%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상승
- **쉬었음 및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6월에 12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000명(4.9%) 증가. '구직단념자'는 15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000명(27.5%) 증가

■ **한편, 취업자는 연령계층별로는 50세 이상에서 증가(30만 명)하였고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2만 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8만 4,000명)에서 증가**

□ '신출내기' CEO가 해야 할 일*

■ **기업에 신규 경영진이 취임 후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1979년 위기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취임한 루 거스너 CEO는 9년 동안 회사의 고속성장을 이끌었지만, 2005년 'P&G' CEO에 취임한 더크 야거는 조직문화와의 충돌, 신사업 실패 등으로 17개월 만에 퇴진

■ **신임 경영자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

-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고, 기존 회사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 본인의 약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움의 자세 결여
- 기존 업무를 완료하지 않으며, 변화 자체를 위한 변화 추진
- 업무량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조직구조를 복잡하게 구성

■ **신임 경영자의 운영 전략**

구 분	내용
취임 전	· 주요 이해 관계자의 기대사항 파악 및 관계 유지 · 조직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목표와 연계된 과제 정립
취임 후	·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체계화해 주요 과제 도출 · 변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모든 구성원들의 지지를 위한 긍정적 조직문화 구성

■ **신임 경영자는 효과적인 사업전략을 반드시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과 호응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의 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함

* "핵심업무 신속히 파악..조직을 장악하라"(매일경제, 2009.7.14) 참조

□ 새로운 잃어버린 세대(New Lost Generation)*

■ **최근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인 '새로운 잃어버린 세대'가 '불안한 세대', '아이팟(IPOD) 세대' 등으로 변주되어 떠돌고 있음**

- '잃어버린 세대'란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26년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라는 장편소설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퍼진 말로 제1차 세계대전 뒤 환멸에 빠진 미국의 지식인과 청년을 가리킴
- '새로운 읽어버린 세대'란 유럽 젊은이들이 고실업으로 1차 대전 직후와 같은 극심한 불황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임

■ **특히 프랑스·영국·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이 가히 살인적임**

- 프랑스는 지난해 전체 실업률이 약 26%에 달했지만 25세 이하 구직자의 실업률은 40% 이상으로 오름
- 또 영국 실업자의 3분의 1은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이고, 스페인의 청년실업률도 40%에 육박
- 최근 10년간 유럽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각종 사회보장수당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 계약직이 크게 늘었고, 이런 일자리가 주로 젊은이에게 돌아가고 있음

■ **프랑스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제네라시옹 프레케르(불안한 세대)'라 부름**

- 영국에서는 '불안정하고(insecure), 압력을 받으며(pressured), 과중한 세금부담(overtaxed)과 부채에 시달린다(debt-ridden)'는 의미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 '아이팟(IPOD)세대'라 부름

■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젊은이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경험과 능력, 자신감을 잃은 새로운 세대가 될 위험이 있음**

- 우리 나라도 늘어나는 청년 실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망되는 상황임

---

* "취업난 유럽청년은 IPOD 세대"(동아일보, 2009.7.16)

□ 2009년 상반기 중국경제 지표와 전망

■ (개요)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7.1%로 발표

- 2009년 2/4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 1/4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는 7.9%를 기록함으로써 1.8% 포인트 가속
  - 따라서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7.1%로 뛰어 올라 중국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바오파(保八) 실현에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음

< 2009년 상반기 중국 주요 경제지표 >

(단위 : %)

주요 지표	증가율		주요 지표	증가율	
	1/4분기	상반기		1/4분기	상반기
GDP	6.1	7.1	광의통화량	25.5	28.5
CPI	-0.6	-1.1	FDI	-20.4	-6.8
PPI	-4.6	-5.9	재정수입	-8.3	19.6
고정자산투자	28.8	33.5	교역량	-24.9	-17.7
소비재판매	15.0	15.0	수출	-19.7	-21.4
공업생산	5.1	7.0	무역흑자	50.4	-1.3
도시주민 1인당 소득	10.2	11.2	발전량	-2.3	3.6
외환보유액	16.1	17.8	PMI	52.4	53.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세부 지표 동향) 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출경기 악화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소비는 횡보세를 보임

- **투자 급증** : 2009년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하여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
  -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4분기의 28.8%에 비해 4.7% 포인트 상승하여 정부 주도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정자산투자 급증으로 3대 지출 항목 중 투자 부문은 중국경제성장률을 6.2% 포인트나 견인

- **소비 둔화세 진정** : 2009년 상반기 중국 소비는 둔화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임
  - 2009년 상반기 중국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15.0%로 1/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둔화세가 진정 기미를 시현
  - 하지만, 정부의 소비 진작책으로 농촌소비는 증가한 반면, 도시지역의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횡보

- **수출 부진 지속** : 2009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경기는 1/4분기에 비해 더욱 악화, 수입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불황형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
  - 2009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 1/4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1.8% 포인트 확대
  - 2/4분기 들어 수입 감소폭이 대폭 완화되면서 불황형 흑자 규모가 크게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전망) 상반기 중국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기미를 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부문의 부진은 하반기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짐작됨**

-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 대를 간신히 넘겼으나, 연간 성장률 8% 달성은 정부 투자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음
  - 상반기 재정수입이 1/4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급선회함에 따라 정부투자의 재원조달 압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임

- 소비가 횡보세를 보이고 수출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하반기 중국경제의 급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선진국의 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수출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중국경제가 다른 경제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므로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

- 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경제 회복의 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하기 위해 중국의 내수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

□ MICE시장 선점 경쟁*

■ **MICE시장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대회(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를 통칭해 일컫는 용어임**

- 줄여서 '비즈니스 관광(BT)'라고 부르기도 함
- 1997~2007년간 전세계 국제회의산업은 평균 46% 성장(한국은 평균 150%)
- 2008년 MICE산업 전세계 시장 규모는 약 3,000억 달러(378조 원)

■ **MICE산업은 단순 관광산업에 비해 관련 산업 연계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아 세계 각국 및 도시들이 MICE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음**

< 주요 MICE산업 도시 >

국가/도시	내 용
홍콩	· 영어사용의 보편화, 편리한 항공교통 및 다양한 컨벤션·전시·회의 시설로 매년 300개 이상의 국제대회와 박람회가 열림 · 지난해 홍콩을 찾은 약 117만 명의 MICE 관련 방문객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1인당 7,000홍콩달러(112만 원)로 추정됨
싱가포르	· 국제적인 항공노선과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국제공항 부근에 컨벤션 센터와 1600여 개 객실의 대형호텔이 건설 중임 · 전체 관광객의 25%에 달하는 250만 명의 MICE 관련 방문객들로부터 얻는 수익이 30억 싱가포르 달러(2조 9,400억 원)정도로 추정됨
파리	· 최근 발표된 국제회의·전시연합(ICCA) 순위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함 · 지난해 초에는 파리 시내 11개 전시장과 국제회의장이 합쳐진 VIParis라는 거대 MICE센터 기업을 설립함
이스탄불	· 올해 들어 세계 물포럼과 IMF·세계은행 총회를 유치하면서 MICE산업의 신흥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말레이시아	· 2007년 전체 외래 관광객 2,070만 명 중 MICE 관련 여행객은 5%를 차지하며 거둬들인 수익은 31억 7,000만 링기트(1조 1,400억 원)에 달함 · 지난해 12월 MICE전문기관인 MyCEB를 개설하였음

■ **한국이 MICE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MICE산업 육성정책의 조속한 시행 및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MICE산업 정책을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MICE산업 참여를 촉진해야 함

---

* "관광산업 '마이더스' 378조 MICE 전쟁"(주간조선, 2009.7.13) 외 참조

□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상상력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된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은 상태를 이미지화 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 추진력이다. 따라서 상상력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경영자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필요한 항목이다. 원재료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원재료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이 경영자들에게 요구되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의 경험 법칙과의 유사성을 이용한 모방이다. 다른 하나는 예견하는 활동, 또는 미래를 형상화하는 활동이다. 전자를 수동적 상상력, 후자를 능동적 상상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동적인 상상력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작용에 의한 계산과 계획에 의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으로 애널리스트, 평론가 등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능동적인 예측력의 기초는 경영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데 이는 사상과 철학을 필요로 한다. 적극적인 상상력을 높이는 트레이닝에는 일상 감각과 가치관과 다른 표현을 설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상태를 이미지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상품과 서비스에 관해서 평소 사용하지 않은 추상적인 의미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게 된다. 기업 이미지를 표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회사, 선진화된 회사, 기술력 있는 회사와 같은 표현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볼 때,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나아가 신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 “ 그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정치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
> **- 버나드 쇼 (1856~1950) : 아일랜드의 극작가, 비평가**